

“바이오산업 특화 육성 미래 먹거리 기반 마련”

최경식 남원시장 민선 8기 1주년 기자 간담회

“더 큰 남원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방소멸 위기와 저출산·고령화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더 큰 미래 발전의 발판을 쌓아 가겠다”며 “2년차 임기 동안에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1년이 시장 주요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초석을 다진 시기였다면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은 열심히 뿌려놓은 씨앗들을 거두고 성과로 이어 완성하는 데 힘쓸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남원의 무한한 가능성과 공적자들의 잠재력을 또 한번 발견했다”면서 “앞으로 1년은 더 큰 남원의 미래를 완성하고 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펼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년 차부터는 남원의 미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일하는 성과 중심의 조직을 완성하고 지역활력타운, 가족유전자원 부지문제 해소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생활인구 유치 정주인구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수립

투자 환경개선 기업 유치 총력전 시민이 중심 되는 열린 시정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심신수련원, 글로벌융합교육기관, 한국산업환경기술원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물론 획기적인 투자 환경개선과 규제타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경제지표 하위에 처한 남원경제의 활로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요천 시민공원 조성과 3000억 규모의 ‘할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을 통해 성장의 강력한 축을 이루 변화하는 새 희망 남원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농생명바이오 6차 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천연물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 ▲항공산업을 러스터 조성하고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성공 개최를 통한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및 남원드론문화체험관 건립 등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북대 남원 캠퍼스 설립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전통과 접단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3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을 통한 1000만 관광시대 개막 ▲문화와 예술 테마 관광벨트 구축 등을 민선 8기 2년차 주요사업으로 설명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열심히 뛰어왔지만 부족하

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면서 “시의회와 시민의 뜻을 수렴해 새 희망 남원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전북도 세외수입 실적 평가 432억원 징수 정읍시 ‘대상’

전북도가 실시한 ‘2023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정읍시가 ‘대상’을 받았다.

이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징수액 증감율, 과태료 징수율 등 세외수입 징수 및 운영 전반에 대한 8개 분야 12개 지표에 따라 진행됐다.

정읍시는 세외수입 432억원을 징수해 전년대비 2.4%가 상승한 83.7%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특히 과태료 징수율이 전년 대비 3.8% 상승해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료를 분석,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번호판 영치, 관외 거주자 징수독려 출장 등을 추진해 왔다.

정읍시 관계자는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액 최소화해 최선을 다해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 우수사례 장관상



고창군 해리면 ‘고창 책마을해리’.

(제)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전국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문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인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재단은 이날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에서 전국 117개 기초문화재단 중 창의적 도전 부문에서 최우수상인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재단은 지난해 ‘책마을해리’와 협업해 운영한 ‘창의적문화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유사 사례가 아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례로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재단 이사장인 심택섭 고창군수는 “재단이 고창의 세계유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커뮤니티공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가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거버넌스 확대 및 고창만이 가지는 지역정체성을 살리는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 프로그램은 8월부터 9월까지 멘토-멘티교육프로그램과 예술융합캠프가 운영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 노동저수지 꽃밭 조성 여름꽃 활짝

백일홍·장미 등 관광객 유혹

고창군이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고창읍 노동저수지 주변에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했다.

고창군은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고창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와 재미를 위해 고창읍 노동저수지와 연계한 꽃정원 단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7월 현재 벚들만편초와 황화코스모스, 백일홍, 장미 등 1만9872㎡ 부지에 여름철에 어울리는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이 만개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노동골 꽃정원 단지는 고창읍성을 찾는 관광객

과 지역 주민이 많이 찾는 대규모 꽃밭으로 만들어졌다. 향후 노동저수지와 연계한 관광지로 저수지를 배경으로 산책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꽃정원 단지조성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부지 9만4723㎡ 대상으로 고창군만의 특색있는 지역적인 테마를 가지고 꽃 정원을 만들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고창읍성과 노동저수지를 연계한 색다른 아이디어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칠보 물테마유원지 15일~8월 20일 개장

정읍 ‘칠보 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 오는 8일 이틀간의 시범개장을 거쳐 15일부터 8월20일까지 본격 개장·운영된다.

칠보면 무성리 일원의 물테마유원지는 물테마 전시관을 비롯해 물놀이장, 인공폭포, 생태공원 등을 갖추고 있어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전주와 광주 등 인근 지역에서 매년 3만명 이상의 피서객이 찾아오는 곳이다.

2030㎡ 면적의 물놀이장에는 어린이풀장과 유아풀장을 비롯해 워터터널, 워터스프레이, 바디슬라이드 등 각종 놀이시설도 갖춰져 있다.

물놀이 및 아이를 위해 시는 시설보수와 안전성

검사를 완료했으며 안전요원과 응급구조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과 오전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입장료는 어린이 4000원, 청소년 5000원, 성인 6000원이며 정읍시민은 1인당 2000원을 할인받는다. 20명 이상 단체에도 2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정읍시 관계자는 “무더위를 맞아 칠보 물테마유원지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전북교육청 학생·교사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

10월까지...“양성평등 문화 정착”

전북교육청이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과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에 나선다.

전북도교육청은 ‘2023년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검사를 위한 대상별 문항개발 및 웹 환경 구축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진단검사는 10월까지 진행된다.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는 학생(초4~고3),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별 문항도 다르다. 도교육청은 초등학생(4~

6학년) 12문항, 중·고등학생 12문항, 교직원 및 보호자 12문항 등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대상별 단계에 맞는 성인지 영역 및 하위요인을 반영했다.

도 교육청은 응답 완료 시 검사자의 영역별 성인지감수성 분석그래프를 제공, 검사자 스스로의 성인지감수성 정도를 인식하는 자기점검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시기 전북도교육청 문체건강과장은 “이번 성인지감수성 진단검사 운영으로 성인지감수성 자가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 및 학교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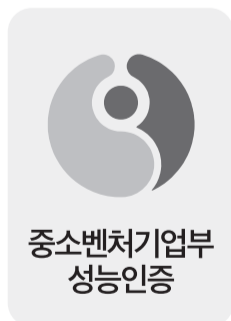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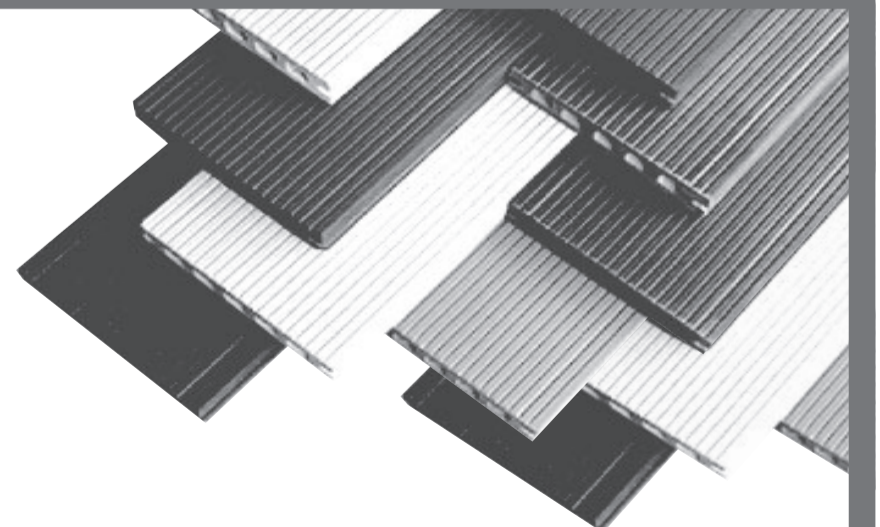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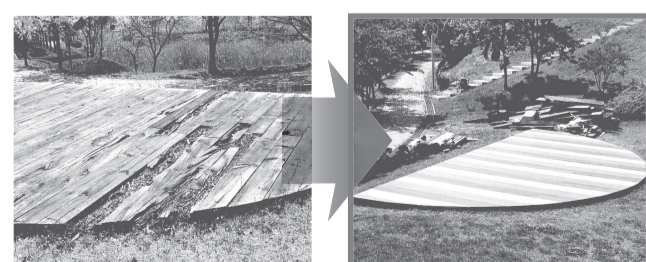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